

###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 뜻깊은 사연을 안고있는 청암동토성

평양의 역사유적들을 돌아 보는 우리의 발걸음은 청암동토성으로 이어졌다.

청암동토성은 대성구역 청암동의 대동강기슭에 위치하고 있었다. 동행한 립금석 평양시민교육유산보존사업 청암동토성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청암동토성은 고조선시대에 처음으로 쌓고 고구려시대에 세번 다시 쌓았다고 한다.

청암동토성의 남쪽으로는 대동강, 동쪽으로는 합장강, 북쪽으로는 합장강과 보통강의 지류인 작은 강줄기들이 흐르면서 천연해자를 이루고있어 성방위에 매우 유리하였다. 그리고 성의 동쪽과 북쪽에는 합장강 하류지역의 퇴적층으로 형성된 넓은 벌이 펼쳐져있어 농사를 지을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였다.

그러나 하면 성의 남쪽면과

동남쪽부분은 대부분 가파로운 절벽이어서 적들이 대안에서 강을 건너 성으로 기어오르기가 어렵게 되어있었다.

그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우리는 청암동토성이 평지와 산지를 합리적으로 결합시키고 방어와 주민지대전개에 유리한 지형을 리용하여 쌓은 것임을 잘 알수 있었다.

우리는 청암동토성에 깃든 가슴뜨거운 사연도 들을수 있었다.

해방후 인민의 첫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 교사진설이 진행되던 그때 기초건설장에서 토성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건설현장에 나오시



어 종합대학위치가 여기가 좋은 곳이지만 토성자리를 없애고 교사를 지을수 없으니 종합대학터전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시었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장구한 력사의

장속영

대학을 졸업하고 수재양성 기지의 교육자가 된 선우정철은 교편을 잡은 첫날부터 수십년세월 학생들을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사명에 전심전력하며 변함없는 한도슴으로 교단을 지키고있다.

교원의 자질이자 학생들의 실력이라는것을 명심한 그는 교수준비와 수업의 전 과정을 학생들의 실력제고에로 지향시키기 위해 교재연구와 자질향상사업에 피라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는 현대교육발전추세와 나라의 교육발전실태를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새로운 교수방법들을 창조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갔다.

교수법도와 학생들의 인식효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자료들

### 2021년 10대최우수교원



## 압록강제 1중학교 강좌장 선우정철

을 구축하고 우수한 교수방법들과 프로그램을 연구도입함으로써 전국적인 수학과과경연우수자들과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은메달수상자들을 비롯 많은 과학기술인재후비들을 키워왔으며 도적인 교수경연들에 참가하여 여러 차례 우수교원의 영예를 쟁취하였다. 지난해에 그는 학생들이 능

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해 풍부한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할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여 학교의 교육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나날 그는 10여개의 새 교수방법등록증과 실험기구 및 교편물창안증을 수여받았고 10월8일모범교수자대렬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도 참가하였다.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후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 후대교육사업에 순결한 망심과 성실한 노력을 바쳐가고있는 것으로 하여 그는 2021년 공화국 10대최우수교원으로 선정되었다.

본사기자

## 부연과 겹치마가 생겨나게 된 유래

부연은 조선식건축물의 지붕처마를 이루는 기본부재인 데 서까래우에 덧붙이는 네모난 긴 부재를 말한다.

건물에서 지붕을 서까래만으로 이었을 때에는 흔들리는 물음에 도목수는 하수없이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유래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먼 옛날 왕궁을 짓는데 동원되어 총책임 맡은 한 도목수는 건설도중 실수로 서까래걸이를 잘못 정하여 수많은 서까래들이 모두 짧아져 쓸모없게 되었다.

아까운 재목을 낭비하게 된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는 지라 도목수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고민속에 나날을 보냈으며 나중에는 침식까지 잃게 되었다.

시아버지가 고민하는것을 본 며느리의 거든되는 살뜰한 물음에 도목수는 하수없이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시아버지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은 총명한 며느리는 품뭉치 생각해보다가 짧아진 서까래를 이으려고 하지 말고 서까래우에 짧아진 처마걸이 만큼 작은 서까래를 덧붙이면 되지 않겠는가고 여쭙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말을 별로 시답지 않게 들었던 도목수의 머리속에는 갑자기 짧아진 서까래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고 그에 기초하여 새로 창안한 부재의 이름을 며느리



가 가르쳐준 서까래라는 뜻에서 《부연》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이렇게 생겨난 겹치마는 조선식목조건축에서 마치고 날아

가는 새가 깃을 활짝 편 것처럼 경쾌하고 날씬한감을 주는 아름다운 지붕처마형식의 하나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 효능 높은 고려약들을 생산한다

공화국에서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약품생산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모란

봉고려약공장에서는 효능 높은 고려약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을 꾸려놓고 고려약품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

적인 힘을 넣고있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각종 약초들에 대한 선별과 절단, 추출, 농축, 제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약품의 질보장에서 뚜렷한 개선을 가져오고있다.

뿐만아니라 압착기, 성형기, 성환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성능을 보다 제고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이들은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새 제품개발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너삼관절염썩약, 백선너삼썩약과 같은 효능높은 약들도 생산해내고있다.

공장에서는 삼지구엽초오갈피정액, 백리향기침단물약, 마가목기침단물약을 비롯한 물약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켜 약품의 질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그러나 하면 물약작업반의 종업원들은 설비의 가동률과 물약생산의 질을 최대로 높이면서도 생산계획을 넘쳐 수

행하고있다. 이들이 생산하는 고려약들은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해가는 긍지를 안고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더 많이, 더 질높게 생산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 장마철에 건강관리 잘하려면

일반적으로 장마철에는 습하고 온도가 높기때문에 몸안에서 생긴 열이 제대로 빠져지지 못한다. 결국 물질대사균형이 파괴되어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기능도 약화된다.

습하고 더운 장마철에는 병균들의 활동과 번식이 활발히 진행되어 식료품이나 음식물이 빨리 변하므로 식중독이나 소대장염에 걸리기 쉽다. 그러므로 장마철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선 장마철에는 물이 오염될수 있는 요소가 많으므로 물을 끓여마시는것이 좋다. 또한 장마철에 미생물과 세균이 잘 번식하는 조건에서 음식물을 만들고 보관하는데서도 주의하여야 한다.

습한 대기는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가지 병의 악화를 가져올수 있다. 따라서 날이 개이면 창문을 열어 방안공기를 건조시키고 침구류들을 햇빛에 말리워야 한다.

특히 옷을 잘 말리워 입어야 한다. 옷은 햇빛에 건조시키는것이 제일 좋다.

햇빛이 내려쬐는 시간에 옷장문을 열어 공기갈이도 자주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집주위환경을 항상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 속담과 뜻

◇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울수 있다. 그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온갖 힘과 정열, 지혜와 성의를 다 쏟아부으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지게 됨을 이르는 말. ◇ 지성이면 감천. 지극한 정성에는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이 지극하고 애써 노력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 ◇ 약보다 사람의 지성이 낫다. 사람의 병치료에서 약도 약이려니와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환자에게 기술이 남일대를 순찰해야 할터인데... 《글세 그리해도 좋겠지만... 무작정하고 이곳에 머물러있을수야 있나? 속히 삼남일대를 순찰해야 할터인데...》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백락서는 허리를 한번 굽실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시다면 우선 오늘 밤 소인의 집으로 가시는데가 어떠하옵는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볼가, 이따가 자네 집으로 감세.》

《자, 이놈을 가져가시라 요. 갓 잡은 잉어예요.》 그는 물고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코를 찡그렸다. 《가만, 그런데 뱀새가 나쁘지만. 생선하다더니...》 《그래요. 생선한거예요.》 《뱀새가 나지 않소?》 《아이... 손님한테서도 뱀새가 나느구만요. 뱀뱀새... 물고기라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왜 뱀을 흘리지 않겠나요.》

## 웃소리 물고기도 뱀을 흘린다

한 사람이 안해에게 잉어를 해먹이려고 장에 나갔다. 《생선한 잉어를 한마리 주시오.》 《자, 이놈을 가져가시라 요. 갓 잡은 잉어예요.》 그는 물고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코를 찡그렸다.

《가만, 그런데 뱀새가 나쁘지만. 생선하다더니...》 《그래요. 생선한거예요.》 《뱀새가 나지 않소?》 《아이... 손님한테서도 뱀새가 나느구만요. 뱀뱀새... 물고기라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왜 뱀을 흘리지 않겠나요.》

## 사화

## 엄세영의 결단 (3)

그림 리성일

《레일은 어느 고을로 행차하시러 하옵는지 알고저 하옵니다.》

《아직 미정일세.》 엄세영은 간단히 대답하였다.

《그러하시오면 괴관하실러 인데 며칠간 편히 머무르시다가 다시 떠나시는데가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기가 출지는 않으나 그래도 불편하실 일이 생각해보아 조심되오니 루추하오니 소인의 집에 잠시 거처하시어 어떠하옵는지요...》

《글세 그리해도 좋겠지만... 무작정하고 이곳에 머물러있을수야 있나? 속히 삼남일대를 순찰해야 할터인데...》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백락서는 허리를 한번 굽실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시다면 우선 오늘 밤 소인의 집으로 가시는데가 어떠하옵는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볼가, 이따가 자네 집으로 감세.》

《자, 이놈을 가져가시라 요. 갓 잡은 잉어예요.》 그는 물고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코를 찡그렸다. 《가만, 그런데 뱀새가 나쁘지만. 생선하다더니...》 《그래요. 생선한거예요.》 《뱀새가 나지 않소?》 《아이... 손님한테서도 뱀새가 나느구만요. 뱀뱀새... 물고기라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왜 뱀을 흘리지 않겠나요.》

면 소인은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집안이나 거두고있겠사옵니다.》 《그러하세.》 백락서는 선유사의 승낙을 받아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선화당에서 물러갔다.

이윽고 선유사는 감사에 게 자기가 백락서의 집에 가서 있을테니 인차 감영에 있는 군졸 오십명과 걸음이 빠른 좋은 말 한필을 백락서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넌머마십시오.》

전라감사는 선유사가 무슨 뜻으로 그런 부탁을 하는지 물어볼수도 없어 그저 이렇게 대답하였다.

《글세 그리해도 좋겠지만... 무작정하고 이곳에 머물러있을수야 있나? 속히 삼남일대를 순찰해야 할터인데...》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백락서는 허리를 한번 굽실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시다면 우선 오늘 밤 소인의 집으로 가시는데가 어떠하옵는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볼가, 이따가 자네 집으로 감세.》

가야만 벼슬을 얻어하며 조정과 지방에서 관직을 가지고 행세하는자들의 감투와 사모가 부지된다것이 사실이었다.

그리고보니 전라감사에서부터 미관말까지 이르러까지의 전라도 벼슬아치들은 말할것도 없고 중앙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고관대작들까지도 백락서가 좌지우지하는것이 틀림없었다.

《이것이 무엇이나? 무엇때문에 이처럼 되는것이나? 모두가 백락서의 돈때문이다! 그리고 황제나 황후, 민대감, 대원군 누구나 할것없이 모두가 돈을 좋아하는 까닭이다. 먼저 돈을 가지고 조화를 부리는 놈부터 없애버려야 한다!》

엄세영은 또 한번 마음속으로 맹세하였다.

어느덧 교자가 백락서의 집대문안으로 들어섰다. 엄세영이 교차에서 내리니 백락서는 미리 대기하고있다가 그를 부축하여 사랑방으로 모셔들었다. 엄세영은 아래쪽에 앉아서 장죽(긴 담배대)을 빨면서 몇가지 지방사정을 그에게 물어보았다.

## 조선화 《량반과 농민》

조선화 《량반과 농민》은 여름날 날들이가던 농민부부가 길가에서 량반행차를 보고 절을 하는 모습을 통하여 당시 불평등한 봉건적인 신분제도를 보여주고있다.

남자는 그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히고 농인은 두손을 앞에 모아 절을 하고있으며 갖쓰고 하늘소를 탄 량반은 거만한 눈초리로 그들을 내려다보고있다.

검마잡이는 고삐를 바루 당겨 하늘소를 멈춰세웠으며

뒤따르던 하인은 이들부부가 낮아지는 눈웃음으로 반기고 있다.

순진하고 소박한 농민부부와 눈웃음지은 하인, 거드름 피우는 거만한 량반 등 매 인물들의 표정과 몸가짐을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성격과 심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였다.

대립되는 인간들사이의 첨예한 판계를 표현하면서도 허리굽혀 절하는 농민이 입가에 웃음을 머금음것으로

형상하고 그의 허리에 걸린 구렁에서 큰 저울이 빠져져 나온것과 하인의 등에 큼직한 보따리가 매달린것 등을 그려 화면의 단조로움과 긴장감을 덜었으며 무기력하면서도 허세를 부리는 량반에 대한 비양과 조소를 강조하였다.

사회적문제를 주제로 설정하고 높은 기량을 발휘하여 훌륭히 형성한 화가 김득서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본사기자

백락서는 장지밖에 꿇어앉아서 청산류수같은 말솜씨로 일일이 상세하게 대답하였다.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인사오니 넌머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덕으로 보내드리지요.》

《아니, 그럴것까지는 없네. 그저 그래보게지. 오러 백리밖에서 술을 날라다 먹는걸!》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인사오니 넌머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덕으로 보내드리지요.》

《아니, 그럴것까지는 없네. 그저 그래보게지. 오러 백리밖에서 술을 날라다 먹는걸!》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인사오니 넌머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덕으로 보내드리지요.》

《아니, 그럴것까지는 없네. 그저 그래보게지. 오러 백리밖에서 술을 날라다 먹는걸!》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인사오니 넌머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덕으로 보내드리지요.》

《아니, 그럴것까지는 없네. 그저 그래보게지. 오러 백리밖에서 술을 날라다 먹는걸!》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인사오니 넌머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덕으로 보내드리지요.》

《아니, 그럴것까지는 없네. 그저 그래보게지. 오러 백리밖에서 술을 날라다 먹는걸!》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인사오니 넌머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덕으로 보내드리지요.》

《아니, 그럴것까지는 없네. 그저 그래보게지. 오러 백리밖에서 술을 날라다 먹는걸!》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인사오니 넌머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덕으로 보내드리지요.》

《아니, 그럴것까지는 없네. 그저 그래보게지. 오러 백리밖에서 술을 날라다 먹는걸!》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인사오니 넌머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덕으로 보내드리지요.》

《아니, 그럴것까지는 없네. 그저 그래보게지. 오러 백리밖에서 술을 날라다 먹는걸!》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인사오니 넌머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덕으로 보내드리지요.》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인사오니 넌머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덕으로 보내드리지요.》

《아니, 그럴것까지는 없네. 그저 그래보게지. 오러 백리밖에서 술을 날라다 먹는걸!》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인사오니 넌머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덕으로 보내드리지요.》

《아니, 그럴것까지는 없네. 그저 그래보게지. 오러 백리밖에서 술을 날라다 먹는걸!》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인사오니 넌머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덕으로 보내드리지요.》

《아니, 그럴것까지는 없네. 그저 그래보게지. 오러 백리밖에서 술을 날라다 먹는걸!》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인사오니 넌머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덕으로 보내드리지요.》

《아니, 그럴것까지는 없네. 그저 그래보게지. 오러 백리밖에서 술을 날라다 먹는걸!》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인사오니 넌머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덕으로 보내드리지요.》